

‘화제의 유튜버’ 이근 전 대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100만뷰 ‘가짜사나이’...너 욕설 문제 있어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이력 화려 민간인 특수부대 체험 영상 대박 집사부일체 등 예능 잇달아 출연 막말·가학적 행위에 대한 비판도

100만 조회수로 유튜브를 평정한 ‘사나이’, 이를 발판으로 방송에까지 진출해 시청률을 끌어올렸다.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가 화제의 주인공으로 올라섰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가 100만 조회수의 인기를 모으면서 ‘교육대장’으로 참여한 그 역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강인한 매력과 방송가에선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캐릭터로 특히 2030세대 젊은 남성들의 ‘스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방송가 섭외 러브콜이 그에게로 향한다.

하지만 이면에선 ‘가짜사나이’ 속 일부 내용과 관련한 폭력적 군대문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 화제성+신선함 ‘의외의 인물’

이근 전 대위는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7년간 복무한 후 2014년 전역한 ‘군사전문가’다. 서울 경찰특공대 대테러 교관, 미국 국방부 안보수사관, 청와대 경호처 전술사격 교관 등을 거쳐 최근까지 군사·보안업체 무사트의 전무이사로 활동했다.

이처럼 화려한 이력을 내세워 7월 민간인 특수부대 훈련 체험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가 크게 흥행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는 ‘교육대장’을 맡아 이용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훈련생들에 자주 외친 “너 인성 문제 있어?”라는 말은 유행어까지



유튜브 ‘가짜사나이’를 통해 ‘반짝 스타’로 떠오른 이근 전 대위(왼쪽)를 두고 방송가에서는 ‘신선한 캐릭터’라는 의견과 함께 일부 폭력적인 군대문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이근이 출연한 ‘가짜사나이’ 한 장면. 사진출처 | 화면캡처

변했다. 영상은 많게는 1200만 조회수까지 다다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에 방송가에도 활동 영역을 넓혔다. 최근 SBS ‘집사부일체’, JTBC ‘장르만 코미디’, 디스커버리 채널 ‘서바이벌’ 등에 연달아 출연했다. 출연자들이 이 전 대위로부터 훈련을 받는 모습을 담은 반응은 었었다. ‘집사부일체’는 13일 이 전 대위의 출연에 힘입어 최근 4%대(닐슨코리아)에 머물던 시청률을 끌어올렸다.

방송가에서는 신선함과 유튜브 화제성을 배경으로 꼽는다. ‘장르만 코미디’

제작관계자는 14일 “‘가짜사나이’로 보여준 진정성과 카리스마, 전문적인 콘텐츠(이야깃거리)들이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안보 기밀과 관련돼 발할 수 없다”는 그의 숨겨진 인생사도 흥미를 끄는 요소다. 이 전 대위와 개인 인터뷰를 나눈 SBS 모비딕 ‘제시의 쇼터뷰’는 공개 3일 만인 이날 현재 217만뷰를 돌파하며 유튜브 인기 영상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 폭력적? 일부 비판의 시선도 제기

하지만 이근 전 대위가 이끈 ‘가짜사나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훈련에 참여한 피교육자들에 대한 막말과

욕설 등 모욕적 언사와 자칫 폭력적·가학적 행위까지 비칠 수 있는 일부 내용 때문이다. “인성 문제 있어?”라는 등 언급도 피교육자들과 이용자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시선이다.

이에 타인의 고통을 그저 재미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폭력적인 군대문화를 담아냄으로써 군 생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간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기 콘텐츠에 대한 대중적 열광의 이면도 돌아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BIFF, 코로나19 상황 보고 개최 여부 확정

부산국제영화제가 추석 연휴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개최 여부를 확정지를 방침이다.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당초 일정보다 개막일을 2주 연기해 10월21일 개최기로 했지만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윤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영화제 티켓 발권 마지노선인 10월15일경 오프라인 개최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며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아시아콘텐츠엔필름마켓 등 마켓만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1996년 출범 이래 25년 만에 처음 영화제가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10월21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내 5개 상영관에서만 열린다. 개폐막식, 레드카펫 등 오프라인 행사는 전면 중단하고 해외 게스트 초청은 물론 프레스배치 발급도 중단했다. 상영작 또한 지난해에 비해 100여 편 줄어든 192편이다.

방탄 RM, 국립현대미술관에 1억원 기부



RM

그를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국립현대미술관에 1억 원을 기부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4일 “RM이 12일 생일을 기념해 ‘아름다운 미술 책’ 읽는 문화 확산의 뜻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을 통해 1억 원을 기부했다”며 “본인이 책을 통해 미술을 더 깊게 이해하는 것처럼 미술관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도 쉽게 미술을 접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출간한 미술 도서를 중심으로 특히 절판돼 구하기 어려운 도서 및 재발행이 필요한 도서 제작에 쓰인다. 제작된 도서는 도심에서 먼 전국 400곳 공공도서관 및 도서관간지역의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기증된다.

오인혜, 의식 잃은 채 발견 후 병원 이송

배우 오인혜(36)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오인혜는 이날 오전 5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오인혜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인혜는 2011년 영화 ‘우리 이웃의 범죄’로 데뷔해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소원택시’, MBC 드라마 ‘마의’ 등에 출연했다.

가수협회,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송 발매

대한가수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송 ‘코로나 이기자’를 14일 발매했다. 노래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함께한 곡이다. 남진, 이자연, 설운도, 정수라, 박상민, 신유, 육중완 밴드 등이 가창에 참여했다. 방역 수칙사항을 준수해 코로나19를 멀리 날려 버리자는 메시지를 가사에 담았다. 이자연 회장은 “노래를 통해 낙심과 절망을 극복해 나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가수 남진 또한 “가수들의 노래가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故 설리 오빠 최모씨 “반성하고 살겠다”

고 설리(최진리)에 관한 다큐멘터리인 MBC ‘다큐플렉스’의 후폭풍이 방송 4일째인 14일까지 계속되고 있다. 설리의 친오빠인 최모 씨는 14일 자신의 SNS에 “동생이 팬들과 대중에게 받은 관심을 악용해 음란, 불순한 행동을 한 점은 저의 불찰이고, 짧은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지속해왔던 것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며 앞으로 반성하고 살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최 씨는 ‘다큐플렉스’에 출연한 자신의 엄마를 두고 “설리를 그만 이용하라”고 호소한 설리의 지인들에게 “그런 말 할 처지 아니냐”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던 바 있다.



‘디바’ 신민아



‘담보’ 이지원



‘죽지않는 인간들의 밤’ 서영희·이정현·이미도



‘돌멩이’ 송윤아

추석 연휴 극장가는 ‘여인천하’

신민아·이지원·이정현 등 맞대결 스타일러·코미디 등 장르 다양각색

추석 극장가는 여성 캐릭터 ‘전장’이 될 전망이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극장가에 이지원을 비롯해 송윤아, 신민아·이유영, 이정현·서영희·이미도 등이 흥행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례적인 명절 연휴 ‘여성 캐릭터의 맞대결’을

펼치며 ‘쏟아진’ 흥행을 노린다.

연휴를 한 주 앞둔 23일 신민아·이유영이 먼저 출전한다. 성공을 향한 야망에 사로잡힌 다이빙 선수와 그 친구의 이야기를 그린 ‘디바’(감독 조슬예·제작 영화사 울)가 그 무대다. 욕망에 집착해가는 이야기를 다이빙 선수들의 몸놀림으로도 표현한다. 신민아와 이유영은 “촬영 4개월 전부터 거의 매일 함께 훈련을 받았다”면서 “전우애와 동지애를 느꼈다”고 연기 호흡을 자랑했다.

29일에는 ‘담보’(감독 강대규·제작 JK필름, 레드로버, 영화사 연)와 ‘죽지않는 인간들의 밤’(감독 신정원·제작 TCO(주)더론텐츠온, 브라더픽처스)을 통해 이지원과 이정현이 맞붙는다. 이지원은 성동일·김희원과 함께 특유의 코믹함과 눈물의 감성을 오가며 2015년 ‘목숨 건 연애’ 이후 5년 만에 한국영화로 돌아온다. ‘반도’, 새 영화 ‘리미트’ 등 최근 활발한 스크린 활동에 나선 이정현은 서영희·이미도 등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는 남편의 정체를 쫓는 신혼의 아내 역을 연기했다.

송윤아는 30일 ‘돌멩이’(감독 김정식·제작 영화사 테이크)로 추석 극장가 흥행 대결에 합류한다.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소

녀에게 8살 지능의 청년이 다가서면서 의심의 시선 속에 이야기를 풀어간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청년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스스로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으로 드라마에 긴장감을 더한다.

이들은 다양한 장르를 무대 삼는다. 미스터리 스릴러(디바), 휴먼 코미디(담보), 코믹 스릴러(죽지않는 인간들의 밤), 휴먼드라마(돌멩이)를 내세운 각 무대는 더욱 다채롭게 추석 극장가를 풍성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부 대작들이 개봉 일정을 미룬 상황. 여성 캐릭터들의 흥행 맞대결이라는, 흔치 않은 풍경으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음원차트 문 두드리는 ‘가을 발라드’

산들 리메이크 ‘취기를 빌려’ 2위 규현 ‘내 마음이 움찔...’도 상위권

더위가 가시면서 음원차트에도 ‘가을’이 찾아왔다. 스산한 가을바람과 어울리는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음악 팬들의 가슴을 진한 감성으로 물들이고 있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요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가을=발라드’라는 흥행 공식에 따른 신곡보다는 과거 인기를 끌었던 발라드 곡들이 차트 10위권에 재진입하는 양상이다.

여름 음원시장을 강타한 프로젝트 그룹 싸쓰리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팬덤이 두터운 가수들이 내놓은 댄스곡 사이에서 아이돌그룹 B1A4의 멤버 산들의 ‘취기를 빌려’가 14일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을 접수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인기에도 끄덕 없었다.

‘취기를 빌려’는 가수 이민혁이 2015년 발표한 노래로, 산들이 7월 리메이크해 선보였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차트에 오르지 못하다가 최근 찬바람이 불면서 5위로 재진입해 안착했다. 8년 만에 ‘차트 역주행’ 화제를 모으고



산들

있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도 ‘취기를 빌려’와 나란히 인기를 끌고 있다. ‘거리에서 우연히 들리는 노래처럼 우리도 다시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라는 아련한 감성을 자극하는 가사와 스탠딩 에그 특유의

맑은 음성이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하다는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슈퍼주니어의 멤버 규현의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도 인기다. 솔로가수로 ‘감성 보컬’ ‘발라드 황태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의 진가가 또 한번 드러나고 있다. 지난날 공개한 노래지만, 최근 차트 상위권에 올라왔다. 일명 ‘고백송’이라 불릴 정도로 규현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설렘을 안겨준다.

이 밖에도 지난해 가을 크게 성공했던 악동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도 1년 만에 차트에 재진입하는 등 계절적 요인에 힘입어 발라드 곡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기자 annjoy@donga.com